

秋 수사지휘권 발동 힘 싣는 與...“윤석열 사퇴 압박은 아냐”

김태년 “공수처 설치 시대적 과제”

김영진 “검찰 권력화 단죄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윤 총장이 손을 떠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수사 정당성’에 방점을 두며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권력의 사유화’, ‘직권 남용’ 등 비판에 대해선 자당 인사들의 비위를 변호하려는 의도라고 폄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지노선인 26일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야당에 제시한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리와 성역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제적인

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라임 사건 관련된 검사비위와 공수처 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 정치화하는 행위를 엄히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유창 의회에 이은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권 내에선 “적절했다”, “강단있고 속시원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사퇴 압박설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봉현의 자필

입장문만 갖고 수사지휘를 한 것 같진 않고 지난 3일간 강도 높은 검찰 과정에서 뭔가 나온 것 같고 수사지휘를 한 것 같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라임 수사 관련해 김봉현의 옥중서신문을 보면 검사를 접대했다는 것 뿐 아니라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향음 제공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다”며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하게 하는 반면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그라들지 않게 담당 지검장이 수사하라는 무거운 질책일 수 있다”며 “사퇴

는 대통령의 인사권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김종인, 원로들에 “당 변화해야”...박관용 “야당답지 못해”

박관용 전 의장 등 상임고문단과 만나 조언 청취



박관용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만나 당의 변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정양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에서는 박 전 의장과 정재철, 나오연, 문희, 이연숙 전 의원 등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4월에 맞이하게 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결정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야만 대선에서 정권교체 위한 발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특히 서울에서 저희가 많은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당원과 의원들 모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고문들께서

이 점을 잘 이해해주셔서 내년도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현안에 대해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의 갈등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불미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역시 특검 밖에 없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당의 원로라면 당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충고도 하는 것이 정당이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 야당은 어디에 가 있느냐는 사실이 있었다. 김 위원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 전반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제출해서 다음 정권 잡는 정당”이라며 “야당 역할은 여당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열정을 가진 정당으로 바뀌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스

‘국민의힘’ 표현 “사과하라”...이재명 “국민의힘 진짜 안 되길”

박성민 “제1야당 ‘국민의힘’ 표현 옳지 않다...예의를 지켜라”

이재명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하면 안된다고 충고 드린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재차 밝히며 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의원은 경기도 홍보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국민의힘을 국민의 집이라 하셨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국민의집’이라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따졌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집)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된다고 충

고 드린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적할 그런 위치가 되나. 그런 표현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하고 재차 따졌고,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치가)된다고 본다. 국민의집이 진짜 안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분위기가 험악해 지자, 국민의힘 이현승(부산 부산진구)을 감사반장은 “소속 정당 훼손이나 조롱은 자제하도록 돼 있다. 제1야당 당명을 갖고 그렇게 하는 말씀은 공인으로, 수감자로 바뀔지 모르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지사는 “감사반장의 말씀이니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입을 닫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의원의 질의 시간에 문제가 더 커졌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질의 후반 “국감에 대한 생각이나 균형발전 등에 대해 말씀해달라”며 이 지사에게 시간을 내주었다.

이 지사는 이 감사반장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야당에 대해 한번도 먼저 선제 공격한 적 없다. 공격을 하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